

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

신한금융투자는 앱(APP)설치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계좌개설 서비스’는 계좌개설을 위해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타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기념해 진행하는 ‘모바일 웹 산타크로스의 선물’ 이벤트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한 신규·휴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6일 ‘키움 투자콘서트’

키움증권은 투자 고수의 강의와 대담 형식인 ‘키움 투자콘서트’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2층 교육장에서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키움 투자콘서트’는 한봉호 대표를 초청해 ‘꾸준한 수익의 비결’이란 주제로 시장을 알고 자기 자신의 기술로 수익을 내는 방법론적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회 2부에서는 김순영 채널K 앵커가 ‘한봉호 대표와의 대화’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한봉호 대표를 현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식트레이딩경영 책임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키움 투자 콘서트 참가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영웅문S 앱에서 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유안타증권

채용전제형 인턴사원 모집

유안타증권은 오는 10일까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제형 동계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이번 인턴사원 채용은 세일즈&트레이딩(Sales&Trading), 투자은행(IB), 리서치, 본사관리, 지점영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한다.

입사지원은 유안타증권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각 모집부문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2019년 1월부터 풀 타임 근무로 진행되며 집합연수, OJT(On the Job Training·교육 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

과정 종료 후 근무 평가 및 대표이사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입직원으로 채용 연계한다.

이중저 유안타증권 인사팀장은 “신입사원 전원을 인턴 수료자 대상으로만 채용하는 만큼 이번 채용은 당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윤경은 KB증권 각자 대표, 전병조 KB증권 각자 대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

임기만료일	2018.12	2019.03	2019.03	2019.03	2019.03	2019.03
3분기 누적 순이익(억원)	2198	2300	3196	1420	652	367
전년비 증가율	66.50%	26.30%	18.90%	53.70%	54.10%	25.30%

/각사

증권가 CEO 올 ‘好실적’에 연임 파란불

임기만료 앞둔 증권가 CEO 성적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자기자본 2.7조→3.2조 연임 확실히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3분기 누적순익 전년비 19% 늘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흑자전환 후 누적순익 652억 실적

올해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투자은행(IB) 부문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3월 IB부문 정영채 대표가 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12년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온 유상호 사장 후임에 IB부문 전문가로 꼽히는 정일문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다른 증권사 CEO의 거취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IB역량 강화를 위해 대부분 증권사 CEO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증권사 CEO 임기만료되는 증권사는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먼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30일 하나금융투자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2조 7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면서 IB부문 체질강화를 선언했다.

때문에 IB부문 경쟁력을 키워온 이 사장이 내년에도 연임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2016년 이 사장 취임 후 하나금융의 IB 수익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IB그룹의 순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8.6% 늘어난 66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순영업이익은 136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그룹 내 하나금융의 수익 비중도 높은데 IB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사장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9년 동안 자리를 지킨 ‘장수 CEO’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내년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최 부회장 역시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자기자본 5000억원대 중소형 증권사에서 3조원대 대형사로 키워낸 만큼 이번에도 연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196억원으로 전년보다 18.90%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전망도 긍정적이다. 권 사장은 지난해 6월 역사상 첫 공채 출신 사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적자를 기록하던 한화투자증권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올해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54.1% 늘어난 6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연임을 통해 체질 개선에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B증권은 각자대표체제에서 단일 대표로 바뀔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현재 KB증권은 윤경은, 전병조 사장의 투톱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두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이달 중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KB증권이 합병 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 단독 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전 사장은 각각 옛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해 1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각자대표가 됐고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했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순이익은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5% 급증했다. 윤 사장이 리테일과 트레이딩을 맡았고, 전 사장이 IB 부문을 맡으며 각자 사업을 키웠고,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IB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각자 대표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투자자문사 10곳 중 6곳 ‘적자’... 순이익 7.1% 줄어

금감원, 중소형사 수익성 악화

전분기비 수수료수익 26.2% ↓

투자자문사들이 10곳 중 6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사의 수익성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7~9월) 중 178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13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계약과 고유재산 운용이익은 늘었지만 수수료수익이 다소 줄었다. 수수료수익은 23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6.2% 줄었다. 운용성과보수를 주로 4~6월 중에 수취하면서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고유재산운용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2% 늘었다.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은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감소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전업 투자자문사 손익현황 추이〉

구분	2017 사업연도 4~9월		2018 사업연도 4~9월		전분기 대비 증감(B-A)		
	4~6월	7~9월	4~6월(A)	7~9월(B)			
순이익	227	208	20	270	140	130	△10

(단위 :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총계약고(일임·자문)는 15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7% 증가했다. 일임 계약고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신규 계약 체결로 4.1%, 자문계약고는 공모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자문수수료 증가로 18.2% 늘었다.

회사별로는 178개사 중 101개사가 적

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56.7%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4%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적자 투자자문사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중소형사의 수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중소 투자자문사의 운용자산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ISA 누적수익률 4.99%p 급락한 3.13%

현대차증권 MP, 19.46%로 1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0월 누적 수익률이 전월(8.12%)보다 대폭 하락한 3.13%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고수익추구형(초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MP)가 누적수익률 19.46%로 1위에 올랐고,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에서는 NH투자증권이 8.9%로 1위를 기록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일임형 ISA MP 204개의 누적 수익률은 평균 3.13%로 전월 말보다 4.99%포인트 하락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0월 한 달 간 코스피지수는 약 13.4%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이 25개 MP 평균수익률이 4.90%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 3.63%, 초저위험 3.25%, 저위험 2.71%, 중위험 2.11% 등의 순으로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업지 기자

연내 전국 아파트 2만2906가구 분양

서울·수도권서 1만2461가구

올해 끝자락인 12월에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11대책으로 연기했던 물량들이 남아 있어서다.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2만290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중 1만8034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서울 및 수도권 물량(1만2461가구)은 지난달(6502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 해보다는 줄어든 물량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3만1133가구보다 올해 1만8034가구

로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6.4%(1만 1714가구→1만2461가구)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9201가구(14곳, 51.0%)에 인천 2481가구(2곳, 13.7%), 경남 1442가구(1곳, 7.9%), 광주 1287가구(5곳, 7.1%), 대구 1003가구(2곳, 5.5%) 등이다.

SK건설이 분양하는 ‘DMC SK뷰’는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59~112㎡, 753가구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공항철도·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